깡깡이 예술마을
근대수리조선 1번지, 대평동
KANGKANGEE Arts Village

萬 事 大 平

만사대평

2018년
3월호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개관행사

2018.3.23
- 3.24

벽사진경 辟邪進慶

사귀(邪鬼)를 쫓고
경사(慶事)로운 일을 맞이함

3.23(금)

15:00 지신밟기와 고사
개관식

3.24(토)

15:00 **북콘서트** 깡깡이예술마을 교양서 시리즈 3편
〈깡깡이마을 100년의 울림 – 생활편〉

16:00 **콘텐츠 쇼케이스**
최백호 〈1950 대평동〉
스카웨이커스 〈깡깡30세〉

3.23(금), 24(토)

13:30 **깡깡이투어** (홈페이지 사전신청)

kangkangee.com
☎ 051.418.1863

2F 마을박물관 3.23 오픈
1F 대평마을다방 운영중

2018년 대평동마을회 총회 개최

지난 2월 27일,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1층 대평마을다방에서 2018년 대평동마을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한해를 결산하고 2018년에 마을에서 이뤄질 다양한 사업과 변화들을 소개하는 이번 자리에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신 이집윤 대평동 노인회장님을 비롯해 박대수 전 대평동마을회장님 등 총 49명의 마을 운영위원 및 대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깡깡이예술마을 사업 경과 및 예산 보고 등 대평동의 다양한 활동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

지난 2월 7일 수요일, 새로이 개관한 대평동 깡깡이 생활문화센터에서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남항동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는 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글·김태현 남항동주민센터





남항동(南港洞) 풍물놀이패가 복(福) 가지고 들어간다

무술년(戊戌年) 황금개의 해를 맞아 2018년 2월 20일 남항동 깡깡이 풍물놀이패의 단원 열여덟 명과 단체원 40여 명이 남항동주민센터에 모였습니다. 김철호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황석한 남항동장님 및 각 단체장, 동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남항동이 행복마을이 되길 기원하며 고기, 떡, 음식, 술, 과일을 차려놓고 고사를 올린 후 한바탕 복울림을 했습니다. 더 많은 복을 나누기 위해 남항동과 대교동, 대평동 지역 내 사업장 및 업소에 들러 상쇠와 풍물패의 신명나는 소리로 잡귀를 쫓아내고 복운을 기원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얼마 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깡깡이 생활문화센터(구 대평유치원 자리)의 무탈과 번영을 비는 의미에서, 센터 안팎으로 더욱 신명나는 소리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사흘 동안 행한 남항동지신밟기를 통해 약 1천 7백여만 원의 모금액이 거두어졌으며, 이 모금액은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적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매년 마을과 지역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남항동 깡깡이 풍물놀이패 분들과, 흔쾌히 지역 일에 동참해주시는 주민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월대보름의 기운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글·김동진 편집위원

설날 세시풍속은 이어지고 있다

대평동에서는 우리 고유의 설날 세시 풍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도조선 이문환 사장님께서는 음력 1월 1일 설날 새벽 5시~6시경에 조선소에 도착해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바닷가 선대 쪽으로 절을 올린 뒤 각종 기계와 배를 올리는 선대에 정종과 막걸리를 따르며 한 해 동안 조선소가 아무 사고 없이, 기계도 아무 고장 없이 잘 돌아가게 해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조선소를 한 바퀴 돌며 인사 한 뒤, 집에 가서 제사를 모신다고 합니다.

또 창립기념일이자 양력 새해인 1월 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커다란 고사상(4m*8m)에 돼지머리부터 각종 과일과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사장님, 이사님을 비롯해 상갑부, 사무원까지 전 사원이 나와 선대 및 각종 기계를 바라보며 조선소가 잘 되도록 큰 절을 올린다고 합니다. 조선소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풍습을 취재하게 해주시고 촬영한 사진까지 제공해주신 영도조선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평동의 모든 수리조선업체가 번창하길 바라봅니다.

글·김동진 편집위원
사진제공·영도조선 이문환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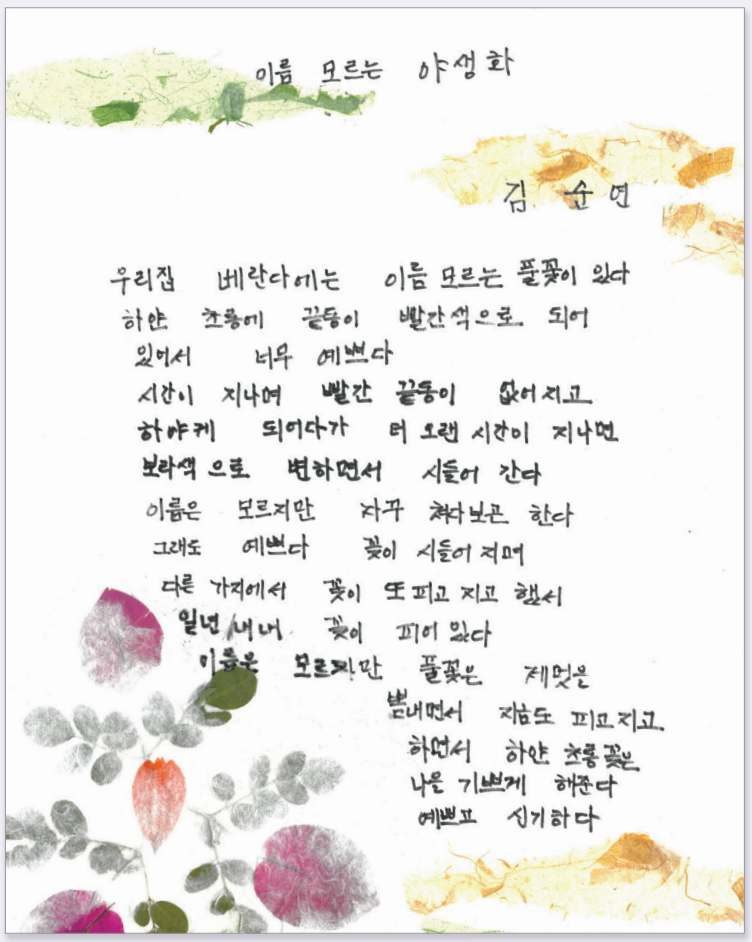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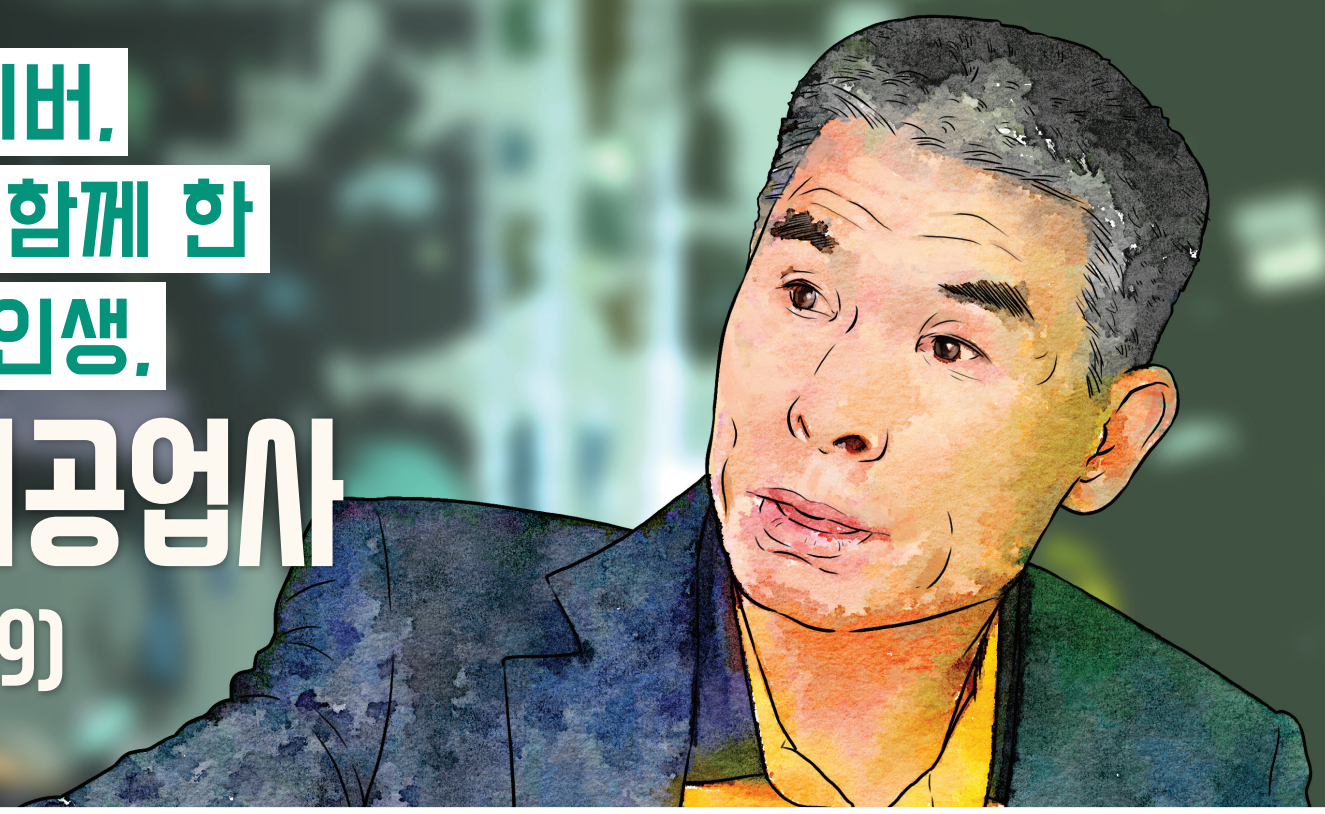
그 밖에 배고사 모습들 ▶

시가 있는 깡깡이마을

* 이 시화는 깡깡이예술마을 시화동아리 회원이신 김길자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니퍼, 드라이버, 테스터기와 함께 한 50년 전기 인생, 예광전기공업사 최경섭 (69)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선박 기계 내에 전기부품을 수리합니다. 수입업자가 일본에서 중고로 기계를 수입해오면 물건을 살펴보고 분해한 뒤 내부를 재정비해서 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를 다듬는 일을 합니다.

전기 기술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평동으로 와서 지금의 전기 직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원래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이었어요. 우리 고모부가 기관장이셨는데 고모부로 인해 대평동에도 오고 제가 회사에 취직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선박 전기 기술을 배우게 되셨나요?

처음엔 특수기술이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가르쳐주면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우리가 배웠어요. 어깨넘어서 본다고 때리고. 그런 식으로 맞으면서 기술을 배웠죠. 그리고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려고 밤 12시까지 야간근무도 했어요. 초봉이 500원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 저희는 절실했죠.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다 왔기 때문에 오직 기술 하나 배워서,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기 작업 공장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내가 세 번째 주인이에요. 우리 공장 앞을 보면 나무 목(木)에다가 흙(土)를 두 번 써서 계수나무 계(桂)자가 적혀있어요. 예전에 일본사람이 와서 지을 때부터 있던 한자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건물도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수리업을 하시다 크게 다칠 뻔했던 일은 없으신가요?

죽을 고비는 정말 많이 넘겼습니다. 그게 당시엔 죽을 고비인지 몰랐지만요. 보통 배들을 일본에서 가져와 쓰기 때문에 440, 220, 110v 3단계로 나뉘는데 440v가 정말로 위험해요. 440v를 잘못 건드렸다가 화상을 입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많고, 특히 땀이 났을 때 전기를 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으로 냉동, 지금은 프레온 가스로 하는데 과거엔 암모니아 가스로 했었어요. 기관실이 보통 바닥까지 2층, 3층 높이인데 거기서 냉



동이 터져 버리면 가스를 피해서 올라올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생각하면 우리 하는 일들이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요.



오랜 시간 대평동에서 계셨는데, 이웃 공업사와도 끈끈한 가족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형제 같아요. 다 형님이고 아우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일도 했고. 또 일을 같이 안 했더라도 원체 많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봐도 되죠. 지금은 떨어져서 자기 사업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계는 끈끈합니다.



옛 동료들이 많이 남지 않은 지금의 상황이 허무하진 않으신가요?

그런 거는 없어요. 정말로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요. 그나마 나는 행운아죠. 우리가 전기를 50년, 60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업하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마는 그것은 아주 극소수 일부죠. 나도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내 가족을 부양했고. 자식들을 가르쳤고, 지금의 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나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걸로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평동이 부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우리 부산에 경제를 일으키는 데 대평동이 사실 큰 일조를 한 거죠. 그때는 우리 선박산업이 컨테이너가 몇십 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선박 수리로 외국에 까지 이름을 날렸던 우리 대평동이 부산의 초창기 경제를 부흥하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를 비롯해서 철공이고 목공이고 우리 기술자들. 우리 선배. 우리 동료. 우리 후배들 보면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특히 우리 전기업체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업체들이에요. 철공업은 아무나 개업 못 합니다. 장비가 많아야 하고 공장이 커야 하는데 우리 전기는 한 서너 평 되는 점포에다가 니퍼, 드라이버, 테스터기 하나만 있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사업을 일으켜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대단하고 존경할 만합니다. 전기를 하고 있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인터뷰 및 정리·우동준 객원기자

사진·평상필름

칭찬합니다

다섯 번째
칭찬릴레이 주인공
정영수 님

대평동 정영수 님께서는 유림가스를 운영하시는 김상겸 씨를 칭찬 주인공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평소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는 등 지역에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새해맞이 남항동 새마을 부녀회의 떡국 나눔 행사에 필요한 가스도 무료로 제공해 노인정 어르신들께 따뜻하고 맛있는 떡국을 해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티 나지 않게 가스 기부며 봉사도 하시는 모습이 귀감이 되어 그 따뜻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취재 • 이종렬 주민기자

수영성마을박물관에 가다



* 깡깡이마을 주민기자 네 명이 부산의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한 후기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든 것이 있는 곳 - 마을박물관, 마을기업, 그리고 마을해설사

3월 2일 금요일.

정월대보름날 수영구의 수영성문화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수영사적공원을 지나 3층 건물 앞에 도착하니 눈에 익숙한 느낌의 외벽 그림이 보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작업을 한 다닐로 제 팔리토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수영동 마을박물관이었습니다. 1층에는 마을다방이, 2층에는 마을박물관이 있었고 3층은 문화사랑방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수영성문화마을 건물 내부는 조목조목 알찬 느낌이었습니다.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의 마을 조성 사업의 성과라고 합니다. 감탄하고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마을 전망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수영동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 숲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내부는 야트막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큰 변화에서 비켜나 마을이 본래 지닌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다방에서 ㈜푸조와 곰솔 마을기업의 대표 전미경 님을 만났습니다. (푸조와 곰솔은 천연기념물로 각각 수령 500년, 400년인 고목임) 푸조와 곰솔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43호), 수영성사적공원 등등 마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한데 엮어 현재의 마을기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깊이 빠져들 만큼 재밌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전미경 대표는 마을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은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마을해설사 역할의 중요성과 마을신문의 가치와 편리성, 사무국장의 중요성(인터넷 사용 가능 필수) 등 마을기업의 매끄러운 운영을 위해 꼭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점을 강조해주셨습니다. 그밖에도 회계 사무소와의 연계, 공모 등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등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마을해설사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전미경 대표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미경 대표는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이 그 마을을 떠올렸을 때 해설사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정말 잘 하는 해설사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마을을 소개하고,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배웅해주는 전 대표님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걸 보니 그곳에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깡깡이예술마을도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로 기억되는 마을이 되길 바랍니다.

글·이춘옥 주민기자

▸수영성문화마을 갤러리 내부









▸수영성문화마을 갤러리에서



▸마을기업 명칭이자 마을 다방 명칭인 <푸조와 곰솔>

▸전미경 대표(마을해설사)와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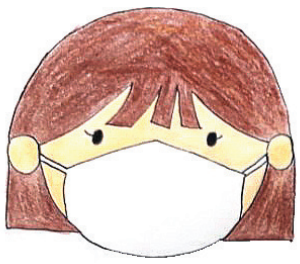
*** 기획 코너인 「주민기자가 간다」는 3월호를 끝으로 연재를 종료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기자들의 연구와 취재는 계속 될 것입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100세까지 깡깡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상식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미세먼지, 예방법은?

① 호흡기, 심혈관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외출 자제 / 실외 활동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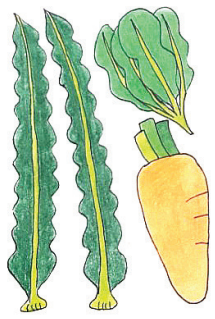
② 실외 활동 시에 황사 마스크를 착용 / 외출 후에는 코와 손을 잘 씻기

③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창문을 닫은 후 에어필터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도움이 됨

⑤ 마스크는 하루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좋음

⑥ 환기 요령 : 앞 뒤 창문을 활짝 열고 최단시간(1분 내외) 동안 환기시켜주면 좋음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① 미세먼지, 황사가 많은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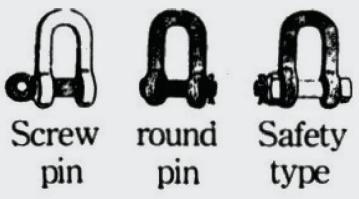
②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 자주 섭취
: 몸속의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효과

글 및 그림 · 이은미 주민기자

KK 깡깡이 예술마을

대평동 용어 사전

[섀클]
shackle





깡깡이마을에서 많이 보이는 부품 중 하나를 고르라면 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말편자 같이 생기기도 한 것이 손바닥만큼 작은 것부터 사람 머리만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쌰클'이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물건의 정식 명칭은 '섀클'입니다. 쇳대(연강(軟鋼)가 U자 형태로 구부러져있는데 벌어진 양 끝에는 구멍이 있어 핀을 가로질러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비녀를 찌르듯이 말이죠. 이 부품은 주로 서로 연결하기 어려운 체인 두 개를 연결하거나 로프(밧줄)를 매는 데 사용하며 와이어로프의 끝 부분이나 달기 체인 등의 연결 고리에 연결하여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로프의 경우, 로프와 로프 또는 로프와 다른 물건을 직접 연결하면 그 부분의 강도가 약해져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섀클을 사용하면 단단하게 연결할 수 있죠. 섀클의 종류로는 보우(bow)섀클 앰커형과 스트레이트(straight) 섀클D형이 있으며, 모두 핀이나 볼트와 조합해 사용합니다. 섀클의 끝 부분이 벌어져 있거나 핀의 직경이 원래보다 10% 이상 마모되어 있거나 또는 전용 섀클 핀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글 · 하은지 편집위원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소식

깡깡이 예술마을 사업이란?

깡깡이예술마을 사업은 2015년 부산시 예술상상마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도 대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깡깡이예술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마을 거점 공간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낡은 대평동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깡깡이 생활문화센터의 1층에는 마을 공동의 수익 창출을 위해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대평마을다방과 공동체부엌, 2층에는 대평동 깡깡이마을의 역사와 산업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을박물관과 마을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평마을다방 현재 영업 중**
(이용시간 11:00 - 20:00)

▸**깡깡이 마을박물관 3월 23일 오픈**
(이용시간 11:00 - 18:00)

위치 및 오시는 방법

깡깡이 생활문화센터(구 대평동마을회관, 대평유치원 자리 / 영도구 대평로27번길 6)

문의 051-418-1863







● **「만사대평」에서는 지면광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광고료는 5x7cm(명함사이즈) 1만원, 11x8cm 2만원입니다. 광고료는 향후 마을신문 발행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공공도서관, 영도구내 주요 관공서와 관광안내센터 등에 배포됩니다.
* 광고를 싣기 원하는 분은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 051-418-1863 /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8-8, 2층 생활문화센터 / ydart2016@hanmail.net
발행처: 영도문화원 **편집인:** 김동진, 하은지 **주민기자:** 이춘옥, 이종렬, 이은미 **디자인:** STORYMERGE Design **발행일:** 2018년 3월 20일
「만사대평」은 부산시 예술상상마을(깡깡이예술마을) 조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